

여고생의 하반신 형태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Girls' Lower Bodyshape

이영주

경성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Lee, Young Ju

Dept. of Living Science, Kyung S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degree of consciousness and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 of high school girls' lower bodyshap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96 high school gir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degree of satisfactions of girth items in lower part of the body were influenced by real body size than ideal body size. Bu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weight was influenced by ideal body size and height was influenced by real size body.
2. The high school girls thought ideal body shape was tall in height, long in leg, slim in girth and light in weight. Therefore, they wanted to have slimmer, longer, and lighter body size than real body size.
3. The high school girls were more satisfied with lean body type than with standard body type or with obesity body type. Therefore they wanted to be lean body type.

Key words: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body cathexis, the degree of satisfactions of body cathexis, lower bodyshape, real body size, ideal body size

I. 서 론

의복과 신체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영상문화세대로 불려질 만큼 시각적인 문화와 친숙하게 성장하였으므로 이상적인 체형이나 유행하는 의복 등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박재경·남윤자, 1999).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성장과 사회성의 발달

Corresponding author : Lee, Young Ju

Tel. (051)620-4667, Fax. (051)623-5248

E-mail : Young99@star.kyungsung.ac.kr

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이 인지한 신체상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자신에게 만족하게된다. 특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의 차이가 많을수록 커지며(Davis, 1985) 추구하는 이상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복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의복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한다.(박우미, 1997)

고애란·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에 대해서는 중·고·대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이 하반신과 전신에 대해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여대생과 성인 여성들에 집중되어있으며(김정숙, 1984; 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1999; 정재은, 1993, 1999; 정옥임, 1993; 최유미, 1993; 이영주·박옥련·이정옥, 1997) 구체적인 신체부위와 여고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모에 민감한 시기인 여고생들의 자신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이상체형과 실체체형을 비교 분석하여 여고생들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반신의 형태를 분석하고 여고생들이 하반신중에서 불만으로 생각하는 부위를 의복을 통해 최대한 결점을 보완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착용감이 우수한 하의 설계와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여고생 199명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고생 97명을 대상으로 1999년 6월~8월에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학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학년 분포

학년	인원수(명)	백분율(%)
1학년	116	39.2
2학년	157	53.0
3학년	23	7.8
계	296	100.0

2. 연구방법

1) 인식도와 만족도

하반신 부위 중 하의인 스커트나 슬랙스 제작 시 필요한 치수와 일반적으로 쉽게 인식하고 있는 부위인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 멀위길이, 다리길이, 몸무게, 키의 10항목을 선택하여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 하반신 계측

하반신 계측부위는 인식도와 만족도 검사시 선택된 부위를 마틴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3)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마틴계측기에 의한 피험자의 계측치수를 알려준 뒤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상치수를 적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인식도 항목에는 '가늘다, 짧다, 작다, 가볍다'를 1점으로 하고, 반대로 '굵다, 무겁다, 길다, 크다'를 5점으로 하였다. 만족도의 항목에는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

〈표 2〉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가점수

지역 부위	여고생						T-value	20대		
	부산		경기도		전체					
	X	S · D	X	S · D	X	S · D				
인식도	허리둘레	2.99	1.09	3.20	1.12	3.06	1.07	-1.56	3.42	
	배둘레	3.34	1.13	3.53	0.91	3.40	1.06	-1.40	3.66	
	엉덩이둘레	3.51	1.02	3.45	1.05	3.49	1.03	0.42	3.70	
	대퇴둘레	3.46	1.07	3.66	0.88	3.56	1.01	-1.62	3.78	
	장딴지둘레	3.26	1.15	3.41	1.05	3.34	1.12	-1.09	3.71	
	발목둘레	2.67	1.15	2.76	1.10	2.72	1.13	-0.68	3.18	
	밀위길이	3.16	0.77	3.04	0.68	3.10	0.74	1.31	3.27	
	다리길이	3.05	0.92	2.99	0.82	3.02	0.89	0.56	2.76	
	몸무게	3.07	1.01	3.24	1.03	3.16	1.01	-1.37	3.38	
	키	3.03	1.09	2.74	1.09	2.89	1.10	2.10	2.76	
만족도	허리둘레	2.70	1.31	2.23	1.24	2.47	1.30	3.00	2.21	
	배둘레	2.20	1.25	1.94	1.00	2.07	1.18	1.77	1.99	
	엉덩이둘레	2.21	1.14	1.99	0.93	2.10	1.08	1.66	1.94	
	대퇴둘레	2.22	1.16	1.97	1.00	2.11	1.12	1.83	1.71	
	장딴지둘레	2.39	1.25	2.07	1.06	2.23	1.20	2.16	1.99	
	발목둘레	3.13	1.21	2.99	1.17	3.06	1.20	1.33	2.55	
	밀위길이	2.93	1.00	2.61	0.96	2.77	1.00	2.62	2.47	
	다리길이	2.63	1.34	2.30	1.07	2.47	1.26	2.15	2.18	
	몸무게	2.50	1.37	2.07	1.24	2.29	1.34	2.61	2.11	
	키	2.40	1.27	2.01	1.04	2.21	1.22	2.62	2.02	

* p<0.05, ** p<0.01, ***p<0.001

다, 아주 불만이다'의 순으로 5점에서 1점을 주어 조사하였다.

1) 지역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표 2>는 부산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이영주·박옥련·이정옥(1997)의 20대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의 인식도와 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부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은 인식도에서는 키에 대한 인식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산의 여고생들이 경기도의 여고생들에 비해 자신의 키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 전체의 인식도를 보면 여고생들은 여대생들과 마찬가지로 하반신 중 대퇴둘레를 3.56으로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목둘레를 2.72로 가장 가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허리둘레, 장딴지둘레, 밀위길이, 다리길이, 몸무게, 키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모든 부위에서 경기도 지역 여고생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인식도에서는 키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하반신에 대한 인식에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만족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위가 많았으며 부산지역 여고생들에 비해 경기도 지역 여고생들이 하반신에 더욱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박옥련·이정옥(1997)의 20대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고생들은 하반신 중에서 가장 크게 인식한 대퇴둘레보다 오히려 배둘레를 가장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퇴둘레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만족도도 가장 낮게 나타난 여대생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고생들은 하반신의

인식도에서 20대에 비해 둘레항목은 가늘게, 밀위길이는 짧게, 다리길이와 키는 길고 크게, 몸무게는 가볍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고생들은 하반신 모든 부위에서 여대생들에 비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고생들이 여대생들 보다 신체적 만족감이 낮게 나타난 고애란·김양진(1996)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의 연구가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으로 묶어서 이루어진데 반해 본 연구는 하반신의 각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대생들에 비해 여고생들이 교복을 많이 착용함으로써 하반신의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슬랙스 착용 보다는 스커트 착용의 빈도가 높아 여대생들 보다 구체적인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며 여러 형태의 하의를 착용할 기회가 많은 여대생들이 구체적인 하반신 부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표 3>의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을 보면 밀위길이를 제외한 하반신의 모든 부위는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둘레항목은 굵게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낮으며 다리길이와 키는 길고 클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재은·이순원(1993)의 여대생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 같이 여고생들도 다리길이가 길고 둘레항목은 가늘고 몸무게는 가벼운 하반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부위	상관계수
허리둘레	-.729***
배둘레	-.735***
엉덩이둘레	-.619***
대퇴둘레	-.609***
장딴지둘레	-.698***
발목둘레	-.614***
밀위길이	.056
다리길이	.577***
몸무게	-.149**
키	.157***

* p<0.05, ** p<0.01, ***p<0.001.

2.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1) 인식도와 계측치수·이상치수와의 상관관계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계측에 의한 계측치수·이상치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인식도와 계측치수는 모든 하반신 부위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식도와 이상치수는 허리둘레, 다리길이, 몸무게, 키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고생들은 하반신에 대한 굵기와 크기를 인식을 할 때 자신의 이상치수와의 비교에 의한 인식보다는 자신의 계측치수에 의해 자신의 하반신을 인식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계측치수가 이상치수 보다는 하반신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인식도와 계측치수·이상치수와의 상관관계

부위	상관계수	
	계측치수	이상치수
허리둘레	.567***	.125*
배둘레	.476***	.099
엉덩이둘레	.362***	-.101
대퇴둘레	.274***	-.098
장딴지둘레	.302***	-.077
발목둘레	.316***	-.033
밀위길이	.194***	.090
다리길이	.250***	.139*
몸무게	.612***	.317***
키	.809***	.490***

* p<0.05, ** p<0.01, ***p<0.001

2) 만족도와 계측치수·이상치수·인식도와의 상관관계

하반신의 만족도와 계측치수·이상치수·인식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계측치수와 만족도는 밀위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상관을 보였으며 둘레항목은 부적인 상관, 길이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실제 하반신의 둘레치수가 클수록 불만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만족도와 계측치수·이상치수·인식도와의 상관관계

부위	상관계수		
	계측치수	이상치수	인식도
허리둘레	-.491***	-.035	-.729***
배둘레	-.410***	-.094	-.735***
엉덩이둘레	-.287***	.079	-.619***
대퇴둘레	-.188***	.078	-.609***
장딴지둘레	-.192***	.104*	-.698***
발목둘레	-.221***	.071	-.614***
밀위길이	.044	.076	.056
다리길이	.296***	.128*	.577***
몸무게	-.203***	-.322***	-.149**
키	.175***	.138*	.157***

* p<0.05, ** p<0.01, ***p<0.001.

만족도와 이상치수와의 관계는 장딴지둘레, 다리길이, 키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몸무게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만족도와 계측치수, 이상치수, 인식도와의 상관을 보면, 둘레 항목에서는 만족도와 인식도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고생들이 자신의 하반신에 대한 둘레항목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치수 보다는 계측치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계측치수 보다는 인식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정재은·남윤자(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몸무게는 이상치수, 키는 계측치수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몸무게와 키는 자주 우리가 계측하는

부위로 실제 자신의 치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와 키에 대한 구체적인 치수에 대한 개념이 있으나 그 외의 부위는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인 치수를 아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자신의 막연한 인식에 의해 만족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비교

여고생들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는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 밀위길이, 몸무게는

〈표 6〉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차이 (단위:cm)

부위	계측치수		이상치수		T-value
	X	S · D	X	S · D	
허리둘레	65.48	5.75	60.04	6.99	13.36***
배둘레	78.52	7.62	67.90	6.72	18.46***
엉덩이둘레	89.97	5.56	82.11	6.95	14.44***
대퇴둘레	50.96	6.04	41.60	6.02	14.38***
장딴지둘레	33.82	4.45	29.69	3.38	15.74***
발목둘레	20.87	2.05	19.41	1.77	13.04***
밀위길이	26.81	3.06	26.07	5.38	2.60**
다리길이	94.27	7.75	100.48	9.06	- 13.02***
몸무게	51.01	5.91	47.02	3.54	16.35***
키	160.29	5.10	166.67	3.72	- 20.99***

* p<0.05, ** p<0.01, ***p<0.001.

이상치수가 작고 다리길이와 키는 이상치수가 계
측치수 보다 커서 다리길이가 길고 키는 크며 밑
위길이는 짧고 둘레가 가는 하반신형태를 이상적
인 하반신의 형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들이 가장 불만인 부위로 생각한 배둘레
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났
고 정재은·남윤자(1999)의 20대 여대생들의 이상
치수와 비교해보면 20대 여대생들의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몸무게의 이상치수는 63.12cm, 86.97cm,
49kg이고 여고생들은 60.04cm, 82.11cm, 49kg으로
여고생들의 이상치수가 더 작게 나타났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둘레항목에서는 야원형이 보통
형과 비만형에 비해 가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밑위길이는 체형에 따라 인식도에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았으며, 키와 다리 길이는 비만형이
가장 짧고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만족도는 야원형이 보통형과 비만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형과 야원
형의 만족도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고생들은 야원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체총
실지수가 보통인 평균체형의 여고생들도 야원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3.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계측치수와 이 상치수와의 관계분석

신체총실지수에 의해 1.20이하는 야원형, 1.21-
1.50은 보통형, 1.51이상은 비만형으로 분류하여 체
형을 분류한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는 야원형은
120명으로 40.5%, 보통형은 168명으로 57%, 비만
형은 8명으로 2.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2) 체형에 따른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차이

체형에 따른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결과를
보면, 계측치수는 체형에 따라 밑위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야원 체
형이 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치수는
유형에 따라 허리둘레, 다리길이, 몸무게, 키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
퇴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체형에 관계없이 모든 체형에
서 자신의 계측치수 보다 더 가늘고 길어지고 가

<표 7>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체형 부위	인식도								만족도								F-value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		F-value	X	S · D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			
	X	S · D	X	S · D	X	S · D				X	S · D	X	S · D	X	S · D		
허리둘레	a2.46	0.99	b 3.53	0.77	c4.75	0.71	67.81***	c 3.25	1.27	b 1.95	0.97	a1.25	0.46	54.24***			
배둘레	a2.84	1.07	b 3.86	0.76	c4.75	0.46	53.48***	c 2.64	1.26	b 1.67	0.88	a1.00	0.00	34.50***			
엉덩이둘레	a3.01	1.00	b 3.86	0.84	c5.00	0.00	42.36***	c 2.54	1.14	b 1.82	0.89	a1.00	0.00	23.94***			
대퇴둘레	a3.08	1.03	b 3.89	0.80	c4.63	0.74	33.94***	b 2.50	1.20	a 1.84	0.94	a1.25	0.71	16.51***			
장딴지둘레	a2.86	1.09	b 3.66	0.95	c4.63	1.06	28.60***	ab2.56	1.24	b 2.07	1.12	a1.50	1.07	7.92***			
발목둘레	a2.32	1.08	b 3.00	1.02	c3.75	1.58	18.51***	b 3.28	1.16	ab2.90	1.18	a2.38	1.69	4.94**			
밑위길이	3.21	0.79	3.03	0.65	3.25	1.17	2.45	b 3.02	1.06	b 2.70	0.88	a1.63	0.74	10.17***			
다리길이	b3.29	0.87	b 2.84	0.79	a2.00	1.41	15.86***	b 2.90	1.35	b 2.24	1.08	a1.13	0.35	16.25***			
몸무게	a2.53	0.92	b 3.59	0.74	c4.88	0.35	78.58***	b 2.74	1.48	b 2.07	1.11	a1.13	0.35	13.65***			
키	b3.22	1.12	ab2.70	0.99	a2.25	1.30	10.49***	c 3.01	1.23	b 1.66	0.74	a1.00	0.00	74.08***			

* p<0.05, ** p<0.01,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었다. a**a**b**b**c**c**.

〈표 8〉 체형에 따른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차이 (단위: cm)

체형 부위	계측치수								이상치수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		F-value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		F-value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허리둘레	a 63.44	4.61	b 66.59	5.02	c 80.63	8.23	53.24***	a 59.50	6.58	a 60.22	7.21	b 66.13	7.59	3.57*		
배둘레	a 76.09	6.54	a 79.92	7.03	b 95.13	9.23	35.23***	66.97	6.25	68.61	6.94	70.88	8.79	2.98		
엉덩이둘레	a 88.65	5.33	a 90.67	5.07	b 99.25	5.73	21.37***	82.54	6.58	81.71	7.08	81.81	8.69	0.52		
대퇴둘레	a 49.40	4.94	ab 52.32	6.39	b 53.13	7.23	9.45***	41.29	5.29	41.99	6.54	39.75	8.04	0.89		
장딴지둘레	a 32.65	3.84	ab 34.82	4.76	b 35.63	3.85	9.85***	29.59	2.97	29.83	3.72	28.88	3.80	0.43		
발목둘레	a 20.54	1.76	ab 21.15	2.27	b 22.00	1.41	4.51*	19.38	1.95	19.37	1.52	20.75	2.44	2.39		
밀위길이	26.85	3.23	26.68	2.77	28.38	4.81	1.19	26.52	7.14	25.67	3.01	25.50	2.62	0.93		
다리길이	b 96.37	6.92	a 92.33	8.03	a 93.63	7.63	10.44***	a101.50	8.15	a 99.21	9.68	b106.38	8.83	4.12*		
몸무게	a 48.30	4.76	b 52.86	5.17	c 64.75	4.95	61.56***	a 46.39	3.23	a 47.36	3.52	b 51.50	3.54	9.83***		
키	c162.91	4.82	b 159.07	4.52	a157.25	5.63	27.97***	b167.79	3.53	a165.71	3.59	a164.88	4.12	13.23***		

* p<0.05, ** p<0.01, ***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었다. a<b<c

벼워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 부위는 비만형이 야원형이나 보통체형 보다 더 가늘기를 원했으며 다리길이도 더 길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개의 경우 이상치수와 계측치수와의 차이가 야원형은 2kg, 보통형은 5kg, 비만형은 13kg이 나서 몸이 비만할수록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가 아주 가늘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야원체형의 여고생보다는 보통체형과 비만체형의 여고생들에 대한 하반신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의 하반신에 대한 불만과 이상체형에 근접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재단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체형에 따른 비만결정 기준부위와 슬렉스 구매시 맞지 않은 부위

체형에 따른 비만 결정 기준 부위는 <표 9>와 같다. 비만한가/ 수척한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위를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에서 68.6%, 66.2%, 75%가 전신이라고 하였으며,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이 비만한가/ 수척한가를 결정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는 부위로 나타났다.

슬렉스 구매시 체형에 따라 맞지 않는 부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보면, 야원형과 보통형은 슬렉스 구매시 가장 맞지 않는 부위가 엉덩이 부위로 34.3%, 33.8%로 나타났으며, 엉덩이 부위 다음으로 맞지 않는 부위로는 야원형은 허리, 보통체형은 대퇴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경미(1992)의 중년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슬렉스

〈표 9〉 체형에 따른 비만 결정 기준 부위

체형 부위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		전체	
	명	%	명	%	명	%	명	%
전신	96	68.6	98	66.2	6	75.0	200	67.6
상반신	12	8.6	18	12.2	0	0.0	30	10.1
하반신	32	22.9	32	21.6	2	25.0	66	22.3
계	140	100	148	100	8	100	296	100

(표 10) 체형에 따른 슬랙스 구매시 맞지 않는 부위

체형 부위	아원형		보통형		비만형		전체	
	명	%	명	%	명	%	명	%
허리	38	27.1	21	14.2	4	50.0	63	21.3
엉덩이	48	34.3	50	33.8	2	25.0	100	33.8
대퇴	24	17.1	38	25.7	1	12.5	63	21.3
밀위	7	5.0	5	3.4	1	12.0	13	4.4
바지길이	23	16.4	34	23.0	0	0.0	57	19.2

구매시 수선부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바지길이는 긴 바지길이의 유행에 따른 여고생들의 긴 바지에 대한 선호에 따라 허리, 엉덩이, 대퇴에 비해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IV. 결론 및 제언

여고생들의 하반신 형태 인식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만족도는 허리둘레, 장딴지둘레, 밀위길이, 다리길이, 몸무게, 키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모든 부위에서 경기도 지역 여고생들이 부산 지역 여고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인식도는 키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2. 여고생들은 하반신에 대한 굵기와 크기를 인식을 할 때 계측치수가 이상치수 보다는 하반신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들이 자신의 하반신에 대한 둘레항목의 만족도는 자신의 이상치수 보다는 계측치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계측치수 보다는 인식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몸무게는 이상치수, 키는 계측치수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고생들은 자신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는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 밀위길이, 몸무게는

이상치수가 작고 다리길이와 키는 이상치수가 계측치수 보다 커서 다리길이가 길고 키는 크며 밀위길이는 짧고 둘레가 가는 하반신형태를 이상적인 하반신의 형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체형에 따른 만족도는 야원형이 보통형과 비만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고생들은 야원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보통체형인 여고생들도 야원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치수와 계측치수의 비교결과 체형에 관계없이 모든 체형에서 자신의 계측치수 보다 더 가늘고 길어지고 가벼워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 부위는 비만형이 야원형이나 보통체형 보다 더 가늘기를 원했으며 다리길이도 더 길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고생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하의의 설계와 디자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적으로 지역적인 확대와 남자고등학생, 남·녀 중학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신체인식도, 신체만족도, 하반신, 계측치수, 이상치수

참 고 문 헌

-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김용숙(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반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김정숙(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 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25-36.
- 박재경·남윤자(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 이경미(1992). 중년여성의 기성복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박옥련·이정옥(1997).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68-382.
-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1(1), 153-162.
-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Clayton, R., Lennon, S. J. Larkin, J., Perceived Fashionability of Garment As Inferred from The Age and Body Type of The Wear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37-246.
- Davis, L. L.(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 cathexis, and attitude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 61(3), 1199-1205.
- Douty, H. I. & Brannon, E. L., Figure Attractiveness :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2), pp. 122-137.
- Lennon, S. J.,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6(3), pp. 196-203.
- 平澤和子・長井久美子(1993). 成人女子の體つきの分類(第2報)-腰部形態の特徴, 日本家政學會誌, 44(9), 761-767.
- 大失愛美・中川苗(1989).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係について,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11), 574-581.